



오늘의 선수 '골 넣는 수비수' 박동진

한국에 첫 승을 선물한 주인공은 '골 넣는 수비수' 박동진(한남대 3년)이었다. 김재소 감독이 "수비수가 두 골이나 넣었다"며 MVP로 꼽은 선수이기도 하다.

박동진은 대만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13분 골키퍼 맞고 나온 공을 잡아 그대로 골대를 갈랐다. 후반 7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넘어온 공을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멀티 골을 작성, 3-1 승리를 이끌었다.



오늘의 말말말 "74% 점유율이라 70점"

74%의 점유율을 통한 3-1의 승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축구대표팀을 지휘하는 김재소 감독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매겼다. 이유는 부족했던 득점력이었다. 이날 한국은 17차례 슈팅을 날렸고, 이 중 12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다. 시원한 필드골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도 아쉬움. 아직은 배가 고프 김 감독이 '난적'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는 몇 점을 이야기할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오늘의 U대회

- ▲다이빙=여자1m·남자3m 스프링보드 결승 남부대국제수영장(4일 13:15)
- ▲남자 배구=한국 vs 대만(4일 15:00), 한국 vs 아르헨(5일 15:00) 연중종합체육관
- ▲여자 배구=한국 vs 칠레 연중종합체육관(5일 15:00)
- ▲남자 농구=한국 vs 모잠비크(4일 14:30), 한국 vs 앙골라(5일 18:00) 동강대
- ▲여자 농구=한국 vs 모잠비크 광주국제육관(5일 15:00)
- ▲기계체조=양학선·박은경 남녀 단체전 예·결선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4·5일 09:50)
- ▲수영=경영 예·결선 남부대국제수영장(4·5일 08:30)
- ▲양궁=기보배·최미선 개인 랭킹라운드 광주국제양궁장(4일 09:30)
- ▲유도=김성연 여자 -70kg 예선·결승 영주빛고을(5일 09:00)
- ▲펜싱=에페·사브르·플러레 개인전 김대중센터(4·5일 09:00)
- ▲사격=50m권총 본선, 10m공기소총·트랩 결선 나주전남종합사격장(5일 11:30)

스코어보드

	한국	남자 축구	3:1	대만	
	일본	남자 축구	0:1	이란	
	한국	여자 축구	3:1	체코	
	한국	여자 배구	1:3	중국	
	미국	남자 배구	0:3	체코	
	한국	남자 배구	3:2	호주	

태극男女, 불꽃 튀긴 '탁공'...기분좋은 출발



"으랏차차~ 첫 승" 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 축구 예선 1차전 한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미드필더 이소담이 슛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별리그 1차전서 대만에 3-1 쾌승

볼 점유 74% 경기 주도...정원진·박동진 연속 골

100점을 향한 '70점'의 출발이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2일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 대만과의 A조 1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정원진의 골을 시작으로 수비수 박동진이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이번 대회 한국팀의 첫 승전보를 알렸다.

스피드와 파워를 다해선 공격수 정원진의 매서운 슈팅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전반 11분 김민규가 왼쪽 진영에서 날린 슈팅이 반대편으로 흘렀고 정원진이 이를 잡아 대만의 골망을 흔들었다. 2분 뒤 이번에도 정원진의 발이 시작점이 됐다. 프리킥 찬스에서 정원진이 날린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왔지만 박동진이 다시 골대를 겨냥하면서 한국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다.

후반 7분 정원진이 코너킥 찬스에서 키퍼로 나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공을 띄웠고, 박동진이 헤딩슛으로 멀티 골을 기록하면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후반 15분 대만 위정정에게 만회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한국은 74%의 점유율을 보이며 경기를 주도했다. 대만이 단 하나의 슈팅과 유효슈팅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12개의 유효슈팅을 포함 17차례 슈팅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배가 고프 대표팀이다.

경기가 끝난 뒤 팀 승리를 이끈 정원진

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정원진은 "킥을 전담하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첫 골의 경우 골대를 비켜가게 때린다고 했는데 운이 좋게 앞에 떨어졌다. 첫 경기에서 준비한 것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다. 이겼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다음 상대가 이탈리아다. 강적이지만 똑같이 두 발로 공을 차는 것이다. 준비했던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담담하게 승리 소감을 밝혔다.

승장이 된 김재소 감독도 '70점'이라며 스코어에 비해 다소 짠 점수를 줬다.

김 감독은 "이겨서 기분은 좋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다. 결과로는 이겼지만 연습했던 것보다 좋지 못해서 답답했다. 몸놀림도 그렇고 선수들이 첫 경기라 긴장을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득점력이 가장 아쉬웠다는 설명이다. 김 감독은 "일단 수비수가 두 골이나 넣었으니 박동진을 오늘 경기 수훈선수로 꼽을 수 있다. 득점은 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골이다. 필드골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해 아쉽다"며 "어느 감독이든 목표는 우승일 것이다. 다음 상대 이탈리아가 캐나다를 5-2로 크게 이겼다. 경기력이 좋은 팀이다.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 경기 잘 치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승점 3점을 수확한 남자 대표팀은 6일 오후 4시30분 정읍종합경기장에서 이탈리아와 2차전을 치른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조별리그 1차전 체코에 3-1 역전승

'월드컵 트리오' 이금민·이소담·김혜영 맹활약

역시 '큰물'에서 놀아본 경험은 달랐다. 한국여자축구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여자월드컵 트리오' 이금민·이소담·김혜영의 몸놀림은 달랐다. 상대 볼을 가로채 점유율을 높이고 기습적 돌파로 상대 수비수를 괴롭혔다.

이들의 활약으로 한국 여자축구팀은 2일 나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체코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3-1 역전승을 일궜다.

이들 트리오는 당초 광주U대회

대표가 아니었다. 여자월드컵에서 8강 이상 진출했다면, 대회 일정상 이번 대회 참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외됐다. 그러나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이 좌절되고, 때마침 기존 명단에 있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김혜영은 이날 체코에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수비수로서 체코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이소담은 상대 볼을 가로채며 점유율을 높였다.

공격수 이금민의 활약은 돋보였다.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평가받는 이금민은 월드컵 16강 프랑스전에서 부상한 지소연을 대신해 선발 투입

된 바 있다. 이금민은 이날 경기에서도 좌우 날개로 패스를 연결해 공격의 활로를 찾아가 하면 기습적인 돌파로 체코의 수비수를 괴롭혔다.

1-1로 승부가 끝날 것 같았던 후반 43분 그의 활약은 더욱 빛났다. 이금민은 체코 진영 페널티박스 안에서 크로스가 된 볼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침착하게 슈팅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금민의 결승골은 체코 수비수를 더욱 흔들리게 만들어 1분 뒤 장승기가 쐬기골을 뽑아내는 데까지도 기여했다.

이금민은 "0-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첫 승을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몸은 무겁지만 앞으로 경기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투지로도 넘지 못한 '장신의 벽'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첫 경기에서 신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다.

2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배구 A조 조별예선 1차전에서 중국에 세트스코어 1-3(21-25, 20-25, 25-20, 16-25)으로 무릎을 꿇었다.

선취득점으로 1세트를 시작한 한

국은 한때 7점차(10-3)로 앞섰지만 이후 대량 실점해 첫 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도 중국의 날카로운 공세에 실점하며 무너졌다. 중국은 한국 수비의 빈틈을 노려 오프 공격에 연이어 성공했지만, 한국은 중국의 장신 선수들의 블로킹에 번번이 막혔다. 3세트 들어서는 중반까지 끌려가다가 뒷심을 발휘해 결국 한 세트를 따냈지만, 4세트에서는 결국 중국의 큰 키를 넘지 못했다.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중국 선수 12명의 평균 신장은 178.8cm에 달하지만 한국은 171.2cm에 불과하다. 한국은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 연중종합체육관에서 칠레와 2차전을 치른다.

여자배구에는 16개국이 출전 4개 조로 나뉘어 조별예선을 치르고 나서 각 조 상위 2개 국가가 8강 토너먼트로 순위를 정한다. 한국은 중국, 칠레, 콜롬비아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특별취재단=김은종기자 ejkim@

중국에 1-3 패

5일 칠레와 2차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중국 선수 12명의 평균 신장은 178.8cm에 달하지만 한국은 171.2cm에 불과하다. 한국은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 연중종합체육관에서 칠레와 2차전을 치른다.

여자배구에는 16개국 이 출전 4개 조로 나뉘어 조별예선을 치르고 나서 각 조 상위 2개 국가가 8강 토너먼트로 순위를 정한다. 한국은 중국, 칠레, 콜롬비아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특별취재단=김은종기자 ejkim@

KIA 필, 모교 후배와 만남 美 선수단에 피자 25판 선물



KIA 대표와 미국 대표의 반가운 만남이었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브렛필이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모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풀러턴캠퍼스 후배들을 만났다. 풀러턴대학의 '타이탄스' 야구팀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미국대표로 참가하면서 성사된 만남이다.

2일 새벽 광주에 도착한 미국 선수단 37명이 필과의 만남을 위해 피곤함을 뒤로하고 경기장 나들이에 나서면서, 2일 경기가 끝난 후 원정길에 올라야 했던 필은 극적으로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

'타이탄스' 팀은 4차례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컬리지 월드컵(CWS)을 제패한 야구 명문. 2004년 팀의 컬리지 월드컵 우승을 일궈냈던 필은 후배들에게 잘 알려진 선배다.

미국 대표팀의 티모시 리차드와 테일러 브라이언트는 "타이탄스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타이탄스를 대표하는 선배님을 보러온 거라서 특별하다. 야구장에서 필 선배를 만나보고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것도 봤다"며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다. 무엇보다 해외에 우리팀이 같이 나와 경기를 하다는 게 중요하다. 팀이 다같이 한다는 자체가 좋다"고 밝혔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은 두 사람은 이날 경기의 KIA 선발이 'BK' 김병현이라는 사실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필은 먼 길을 달려온 반가운 후배들을 위해 피자 25판을 샀다. 구단에서도 '모범생' 필을 위해 특별대우를 해줬다. 후배들이 편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카이 박스를 제공했고, 스카이 박스 출입을 위해 작용하는 종이 팔찌에 'Gol Cal State Fullerton Titans'를 새겨 이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